



광남일보



광용합진흥회, 미국 OFC서 공동관 운영

7

42만여명...고향사랑기부 등 성과

8

17일...2개 상영관 88석 규모

10

롯데아울렛 외부 광장서...“응원에 감사”

12

조간 제7819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음력 3월 12일)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 제안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건의할 전남 미래발전 공약과제 75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광주시·전남도 대선공약 확정

빨라진 대선 시계...공약 선점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 국정과제 반영, 국가 계획으로 이어지는 ‘국정과제 반영 로드맵’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건의할 대선 공약을 8일 확정·발표했다.

광주시 대선 공약은 AI(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사업비 81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우리는 대선을 통해 유능한 민주정부를 수립,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달려가는 대한민국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며 광주공약으로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AI(인공지능)·문화·지속가능성의 3대

시, AI 중심도시 등 15대 과제·40개 사업·81조 규모, 핵심 과제 20건 등 75건...1호는 ‘국립 의대 신설’

성장전략으로 광주에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주도 성장으로 데이터가 돈이 되고, AI가 경제가 되는 ‘AI 모델시티-The BRAIN 광주’를 조성하겠다”며 “AX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도 속도를 내는 한편 누구나 데이터를 거래하고, 어디서나 AI가 실현되는 ‘AI 경제 모델’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선은 서남권 관문공항을 여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서남권 거점 공항도시 조성에 전남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빛그린·미래 차 국가산단 등에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고 양자·휴머노이드 딥테크 산업 기반과 내륙도시 에너지 특화 분산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형’을 신설하고 AI 융합 콘텐츠 문화기술(CT) 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 시설을 조성해 송암산단 일대를 K-문화콘텐츠 테크타운으로 조성한다.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핵심 과제 20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제도 개선과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모두 75건이다. 예산 소요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으로, 국비가 105조9077억원, 지방비가 3조3683억원, 민간자본이 82조6352억원 등이다.

제1호 공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전남에 전남 국립 의대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전남 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과 2, 3호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 밖에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도 핵심 과제에 담겼다.

AI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와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이끌 신성장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업, 관광·문화 등을 망라한 최우선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협약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를 호남권 초광역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20대 핵심과제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신성장동력, 핵심 SOC, 미래농업, 관광·문화·휴양, 인구·복지 등 5개 분야별로 발굴,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도 발표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6월 모의평가, 4일로 연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3·4면

또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권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4일로 조정·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 마감일은 오는 11일까지로 하루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한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6월 모평은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처리되는 데다, N수생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알림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

신민수 한국GPT협회 대표
10일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연이 4월 10일(목) 오후 6시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에서 신민수 한국GPT협회 대표의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신 대표는 현재 한국GPT협회와 ㈜알앤비디파트너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트리즈협회(MATRIZ) 한국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 분야로는 기술 문제 해결, 신사업 발굴, 시장 트렌드 조사 분석, ChatGPT 등 생성형 AI 활용 교육 및 이를 활용한 기술과제 해결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초청강사 : 신민수 한국GPT협회 대표
△주 제 : 생성형 AI로 무장한 스마트 경영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후 6시
△장 소 : 호텔아트하임(구 벤틀리관광호텔) 지하 1층 대연회장
△기타사항 : 오후 5시 30분부터 석식제공 (8층 레스토랑)
△문 의 :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국 (062-370-7090)
△주 최 : **광남일보**

광주 살아? 이 앱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